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요?

제1-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계명들로, ‘하나님만 섬기라’로 시작됩니다. 제5-제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담은 계명들로,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뒤이은 계명들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 담긴 묵상들 없이는 인간들과의 관계 역시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

수 사랑.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 쓰였지만, 그 외에 유일하게 주어로 오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레 19:1).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부모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며, 내 삶의 의미도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에게 불경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 불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요 13:1).

부모

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공경받기에 마땅합니다. 부모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같은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즉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출 21:15, 17; 신 21:18-21).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드물었을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질 걸 알면서 자식을 고발할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합니까?

- ① 어떤 마음,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며 경외합니까?
- ② 공경과 경외를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